

AI 연구계획서 진단 리포트

Arche Strategy Lab · 《반드시 선정되는 연구계획서 쓰기》 진단 프레임워크 기반

과제명: 중장년 1인 가구의 디지털 돌봄 수용에 관한 연구 (가상 예시)

사업: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유형 가정 · 1년 · 2,000만 원

진단 기준: 인문사회 개인연구 통례적 평가 골격 (독창성 30 · 계획의 우수성 50 · 기여도 20)

1. 예상 점수 판정표

평가항목 (배점)	세부항목	현재	수정 후	판정
연구의 창의성 (30)	연구주제의 창의성 (15)	12	13	✓
	연구방법의 적절성 (15)	8	13	✗
연구 계획의 우수성 (50)	계획의 타당성 (20)	14	17	⚠
	구체성·실행가능성 (30)	16	25	⚠
학문 발전 기여도 (20)		15	16	✓
합계 (100)		약 65	약 84	

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연구지원사업은 지원자들끼리 순위를 다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, 65점 안팎은 당락의 경계보다 아래 — 솔직하게는 탈락 가능성이 더 높은 구간입니다.

다만 이 계획서는 주제가 약해서 이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중장년 1인 가구와 디지털 돌봄의 교차점은 정책 수요가 분명한, 경쟁력 있는 주제입니다. 점수를 깎는 것은 두 가지 — 연구 방법 서술의 빈칸과, "왜 지금 이 연구인가"에 대한 답이 없는 서론입니다. 둘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고,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.

2. 왜 이 점수인가 — 핵심 원인 2가지

원인 ① 연구 방법에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(배점 30점 구간의 감점)

계획서 5쪽의 방법 서술은 "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, 질적 분석을 수행한다"가 사실상 전부입니다. 심사위원은 이 문장 앞에서 곧바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— 몇 명을, 어디서 모집해서, 몇 회, 회당 몇 분 면담하고, 무엇으로 분석하는가. 이 곱셈이 계획서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, 심사위원은 이 문서를 '연구계획'이 아니라 '연구 희망'으로 분류합니다. 한번 그렇게 분류되면 뒤의 좋은 내용도 달한 마음으로 읽힙니다.

방법 서술의 완결 조건은 여섯 요소입니다 — 표본, 도구, 절차, 분석, 엄밀성, 윤리. 이 계획서에는 도구(면담 가이드)와 분석(질적 분석)의 이름만 있고, 나머지 네 칸이 비어 있습니다. 특히 연구윤리심의위원회(IRB) 문단이 없는 것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 예외 없이 지적되는 항목입니다.

원인 ② "왜 지금인가"의 답이 없습니다 (혼합 패널 전달력)

서론은 "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"로 시작합니다. 이 문형은 탈락 신청서의 언어입니다 — 관심이 높다는 진술에는 숫자도, 출처도, 시급성도 없기 때문입니다. 이 사업의 계획서는 같은 전공자가 읽지 않습니다. 비전공 심사위원은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— 이해가 되는가, 중요해 보이는가, 될 것 같은가. 첫 문단에서 공식 통계 수치 하나와 출처 하나만 박혀도 첫 판단이 달라집니다.

수정 예시: "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%를 넘어섰고(통계청, 2024), 그중 중장년(40~64세) 1인 가구는 고독사 통계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으로 지목되어 왔다."

3. 수정·보완 로드맵

1순위 — 방법 칸을 6요소로 재작성 (예상 +5~7점)

표본(몇 명·모집 경로·탈락 여유분), 절차(면담 회기·시간), 분석(소프트웨어·단계), 엄밀성(연구자 외 교차 확인), 윤리(IRB 신청 시점)를 각각 숫자와 함께 명시하십시오. "12개월간 40명을 0·6·12개월 시점에 각 90분 반구조화 면담" 수준의 문장이 기준입니다.

2순위 — 서론 첫 문단을 통계형 Hook으로 교체 (예상 +4~5점)

위 수정 예시처럼 첫 문장에 수치와 출처를 박고, "그러나 기존 연구는 [A]에 집중해 왔으나 [B]는 다루지 않았다"의 갭 문장 한 개를 더하십시오. "미흡한 실정이다"는 걸어냅니다.

3순위 — 일정을 표로, 마일스톤을 명사로 (예상 +3~4점)

"1년간 수집과 분석을 진행한다"를 분기별 표로 바꾸고, 각 분기 끝의 산출물(면담 완료 40건, 코딩 체계 1종, 논문 초고 1편)을 명사로 적으십시오.

4순위 — 기대효과를 4유형으로 분해 (예상 +2~3점)

"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"를 유형별 명사와 숫자로 바꾸십시오. 학술(KCI 등재지 1편), 정책(수용 유형 분류표 1종 — 지자체 돌봄 사업 설계 근거), 후속 연구(중장년 패널 확장의 토대). 기대효과에 적은 산출물은 반드시 일정표 어딘가에 그것을 만드는 과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— 이 적합성이 깨지는 순간 심사위원은 계획서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

4. 글쓰기 전략 — 표현 교정

전문성은 유지하되, 비전공 심사위원이 통역 없이 통과할 수 있게 고치는 방향입니다. 이 계획서에서 발견된 탈락 신청서의 언어와 대체 표현입니다.

현재 표현 (감점)

대체 표현 (통과 신청서의 언어)

"~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" (1쪽)	"[기관] [통계]에 따르면 [수치]에 이르렀다" — 관심을 수치로
"~를 살펴보고자 한다" (2쪽, 6쪽)	"~를 규명한다 / 유형화한다" — 의지가 아니라 실행의 선언으로
"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" (3쪽)	"기존 연구는 [공급 측정]에 집중해 왔으나 [수용 메커니즘]은 다루지 않았다"
"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" (8쪽)	"[수용 유형 분류표 1종]을 [지자체 돌봄 사업 설계]에 제공한다"

목표 문장의 동사도 점검하십시오. "살펴본다·탐구한다"로 끝나는 목표는 연구의 끝 그림을 보여주지 못합니다. 규명한다·구축한다·검증한다 — 산출물이 그려지는 능동 동사로 바꾸면 같은 연구도 다른 점수를 받습니다.

5. 최종 체크리스트

- ☐ 방법 6요소(표본·도구·절차·분석·엄밀성·윤리) 전부 채우기 — 숫자 포함
- ☐ IRB 문단 독립적으로 추가
- ☐ 첫 문장에 공식 통계 수치 + 출처
- ☐ "관심이 높아지고 있다" · "미흡한 실정" 표현 전량 교체
- ☐ 분기별 일정표 + 명사형 마일스톤

본 리포트는 ARCHE STRATEGY LAB의 진단 프레임워크(《반드시 선정되는 연구계획서 쓰기》)를 기반으로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. 점수는 심사 배점표 기준의 추정치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 분야 특수성과 해당 연도 신청요강의 세부 규정은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